

었다.

⑧ Esophageal cancer로 trachea extension 경우 airway가 불규칙하게 좁혀 있는 것이 관찰된다.

⑨ Intrathoracic goiter의 경우 airway의 smooth narrowing이 관찰된다.

⑩ Trachea neurogenic tumor의 경우 intraluminal mass가 round하게 보인다.

[결론]

MPVR 및 3-D는 Tracheobronchial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, pathologic lesion의 longitudinal 평가와 수술시 surgeon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 대단히 유용한 검사로 사료된다.

<25>

응급 다발성 외상환자의 기본적 방사선 촬영부위에 관한 조사연구

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진단방사선과
유병규 · 권영갑

[목적]

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개발전과 인구증가와 함께 각종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치명적 다발성 외상을 받은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. 다발성 외상환자의 응급처치에 관해 미국외상학회(ACS : American College of Surgery)에서 규정한 전문 외상처치술(ATLS : Advanced Trauma Life Support)에 근거한 기본적 방사선 촬영부위와 그 의의를 알아 보고자 한다.

[대상 및 방법]

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만 1년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교통사고 및 추락사고 환자 중에 의식이 흐릿한 다발성 외상환자 1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, 평균 연령은 37.6세 였다.

동 기간중 내원한 총 응급환자는 30,085명이었고, 이중 외상환자는 모두 2,208명(7.3%)이었으며, 이 가운데 경미한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및 전원환자 그리고 응급센터에 도착전 사망(DOA : death on arrival), 도착후 사망(DAA : death after arrival)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켜 157명(7.1%)을 대상으로 하였다.

연구방법은 외상환자의 응급실기록지와 전산화단층촬영의뢰장부, 입원기록지 등을 참고로 하여 후향적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, 성별 및 연령별 분포, 내원 시간별 분포, 사고원인별 분석, 전산화단층촬영의뢰율 분포 등을 조사하여 비교 하였다.

[결과]

대상환자 157명 중 남자가 113명(72.0%), 여자가 44명(28.0%)으로 남녀 비는 2.57 : 1이었고, 연령별 분포는 31세에서 40세 사이가 44명(28.0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평균 연령은 37.6세이었다. 내원 시간별 분포는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58명(36.9%)으로 가장 많았고, 사고원인별로는 자동차관련 교통사고가 112명(71.3%)으로 제일 많았다. 전산화단층촬영은 109명(69.4%)을 골반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하였으며, 두부 81명(51.6%), 흉부 62명(39.5%), 경추는 38명(24.2%) 촬영하였고, 두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부위에서는 촬영의뢰율과 이상소견율이 거의 일치 하였다.

[결론]

의식이 흐릿한 응급 다발성 외상환자에 있어서 기본적 방사선 촬영부위로는 흉부(chest AP view), 경추(cervical spine lateral view), 골반(pelvis AP view)의 세 가지 촬영이 꼭 필요하며, 환자 상태에 따라 이동촬영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.

<26>

조영제의 구성성분과 특성비교 및 부작용 발생률에 대한 통계비교